

2010

12월 12일

제18권 50호

마데데스

14년 14월 14일 14시 14분 14초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칼럼 column

나무를 보지 말고 흙을 보라 ①

썩지 않은 '기적의 사과'로 유명한 일본의 기무라 아키노리라는 농부가 있다. 일본 프랑스 요리 식당의 주방장이 사과를 반으로 갈라 냉장고 위에 놓고 그냥 방치를 했는데 2년이 지나도록 썩지 않고 색깔이 변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시든 것처럼 오그라든 채 사과향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기무라의 이름은 일본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농부 기무라는 사과 재배에 있어서 부동의 상식으로 자리하고 있는 농약을 전혀 쓰지 않았다. 기무라의 아내가 농약을 뿌린 뒤 1주일 동안 앓아눕는 것을 보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사과 재배에 도전한 것이다. 물론 주변의 이웃들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말렸다고 한다.

당연히 잘될 리가 없었다. 모든 사과 나무에 벌레가 발생하고 사과는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10년 동안 고생을 했지만 농약과 비료에 길든 사과나무의 성질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작황이 좋지 않으니 생활은 극도로 나빠졌고 생계를 위해 트랙 운전, 부두 하역작업, 나이트클럽의 호객꾼으로까지 일했다고 한다.

결국 목숨을 끊을 생각으로 산으로 간 농부는 탐스런 열매를 맺는 도토리나무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것은 비밀은 나무가 아니라 흙에 있다는 것이었다. 이후 기무라는 산속의 환경처럼 과수원에 잡초를 뽑지 않고 방치한 채 흙이 본래의 생명력을 회복하도록 온갖 노력을 다했다. 그리고 10년 만에 작은 사과 두 알을 얻었고, 4년 후에 많은 사과들이 열리기 시작했다.

한번은 태풍이 불었을 때 주변의 사

과나무는 90%가 떨어졌는데 기무라의 사과나무는 80%가 멀쩡했다고 한다. 사과나무가 땅속 20m까지 뿌리를 내렸고 가지와 나무가 굵고 단단했기 때문이다. 그의 사과는 병충해에 강해졌고 스스로 치유하는 자연 치유력도 생기게 되었으며 썩지 않는 기적의 사과로 불리게 된 것이다.

기무라 농부가 한 말이 있다. 그것은 자연 재배를 하려면 상식에 얽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농약과 비료가 없이 사과를 재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부동의 상식으로 되어 있다. 이 부동의 상식을 벗어난다면 그 사람은 돈키호테처럼 무모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비취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 눈에 보이는 결과만 풍성하면 그것이 곧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보이는 열매를 풍성하게 만드는 일에만 열중한다. 이것이 흙을 보지 않고 나무를 보면서, 단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는 사람의 상식에 해당된다.

문제는 나무가 아니라 흙이다. 나무가 좋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흙이 좋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뿌리 내리고 있는 흙은 어떤가? 농약과 화학비료와 같은 유해성분에 길들여져 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우리 과연 무엇을 의존하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의존하며 살아왔던 것들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다. 자본주의라는 흙에 뿌리를 내린 채 돈이면 다 된다는 상식에 붙들려 살아온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식의 세계를 현대 기독교에서 발견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421-9049 425-9049 070-7648-9049

<http://onlycross.net> 신윤식목사 sys5806@hanmail.net 019-832-9049

주일낮 설교



천국 정신 마 18:8-14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은 매우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자들과 같은 질문만 하지 않으면 해결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즉 제자들처럼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것입니다.

사실 질문 자체만으로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로 높이 받기 때문에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라고 묻는 질문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보셨던 것이고, 천국은 바로 그러한 속성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평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됨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이것이 현대 교회가 안고 있는 큰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라는 말씀은 인간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인간이 아니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인간됨에는 현대 교회가 중요한 신앙행위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주지해야 합니다. 설사 바리새인을 무색하게 할 만한 열심이 있다고 해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됨을 자기를 낮추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자기를 낮춘다고 할 때 여러분 나름대로 이해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낮춤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거의 일맥상 통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어떻게 자기를 낮추니까? 아이에

게는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는 의식조차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자기를 낮추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린아이에게만 있는 특성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특성은 자신의 노력과 열심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자신이 일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아이가 부모의 도움과 보살핌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아이들 세계에도 분명 차이는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의 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부모 덕분에 주어지는 혜택일 뿐이지 자기 노력의 결과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에게 없는 것이 자신에게 있고 다른 아이보다 잘산다는 것을 자랑할 수는 있어도 그 모든 것을 자신이 수고해서 얻은 내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낮춤이란 일한 것이 전혀 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서 예수님이 문제 삼으신 것은, 제자들의 인간됨으로는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를 영접하기는 커녕 오히려 실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차라리 연자 밧들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심각성을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8,9절)는 말씀으로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불구의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이 낫습니까? 신자라면 누구나 전자를 원할 것입니까? 그 말은 천국을 위해 서려면 육신의 한 지체를 버리는 것도 아깝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육신보다는 천국 문제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겠지요.

이러한 신자는 육신보다는 천국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하지만 천국보다 육신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면 그는 자연히 육신을 위해 경쟁할 수밖에 없고 경쟁의 결과에 따라 자신보다 작은 자를 업신여기는 인간됨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10절을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작은 자를 그냥 작은 자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자에게는 천사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대면하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천사가 작은 자에게 함께 하고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면 작은 자는 더 이상 작은 자가 아니라 존귀한 존재입니다.

가진 사람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물인 자기 것으로 자랑합니다. 이것이 육적인 사람이고, 이런 사람의 눈에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자신보다 능력이 없는 자로 비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일한 것이 없이 주어진 것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어진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 앞에서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죄 용서와 구원을 얻은 존재일 뿐입니다. 항상 죄를 즐기고 죄에 끌려가는 우리를 성령을 보내셔서 다스리시고, 천사가 함께 하게 하셔서 돌보심으로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이러한 신자의 관계에는 큰 자 작은 자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천사의 보호를 받고 있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작은 자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어린이와 같은 존재라고 해도 ‘나보다 작다’ 라는 의식이 없이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지체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비록 어린이라고 해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12,13절을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나 만일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라” 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전도를 독려하기 위한 내용으로 미화하여 선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자가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는 심정으로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일단 아흔아홉 마리의 양을 산에 두고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행동은 아흔아홉 마리보다 한 마리의 양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목자에게는 모두가 귀한 양입니다. 그러므로 더 귀하고 더 귀하다는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내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 것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설명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양을 귀히 여기는 사랑을 말하고자 한다면 아흔아홉 마리의 양을 산에 버려둘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우리에게 넣어두고 잃은 양을 찾아 나선 것이 더 합리적이고 양을 사랑하는 모습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백 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이 지니고 있는 실제적 가치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즉 효율성을 따진다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때문에 아흔아홉 마리를 위험에 방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흔아홉마리의 안전을 위해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일은 잠시 미루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에게 한 마리의 양은 단지 가치를 따져 계산할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양이라는 관계를 완벽하게 해주었습니다. 만약 그 한 마리가 없다면 목자의 양은 백 마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즉 한 마리로 인해 백마리의 의미가 충족된다는 점에서 한 마리는 참으로 존귀한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가치로 따져 평가합니다.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로 따지며 필요하지 않는 존재는 가치없이 도태합니다.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구조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오늘 죽는다고 해도 세상은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 명인데 한 사람이 죽고 4999만명이 된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4999만명으로도 대한민국은 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세상의 계산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갈 자를 모집하고 자격시험을 쳐서 합격 여부를 따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당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택한 그들을 부르셔서 오직 은혜로 구원하시는 방식으로 천국을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하나님이 채우기로 정하신 그 수가 채워지는 것이 곧 충만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를 잃은 상태에서 단지 아흔아홉으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아흔아홉이 있다고 해도 하나가 없음으로 인해서 천국은 충만을 잃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숫자를 따지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별 볼일 없는 너 하나는 없어도 된다’는 것은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때문에 작은 자 하나를 업신여기는 것은 천국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천국정신과도 상관이 없는 것이기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 정신으로 모이고 천국 정신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증거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작은 자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라는 윤리적 문제가 아닙니다. 비록 작은 자라고 해도 그 하나가 없음으로 인해서 내가 온전하게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관계입니다.

우린 때로 어떤 사람에 대한 불쾌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가 떠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 불필요한 존재로 여겨진다면 그런 마음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천국에서 한 사람이 단지 숫자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완전케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고 해도 그가 있음으로 천국이 완벽히 채워진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는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가 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아는 것이 천국 정신입니다.

여러분에게 천국 정신이 살아있는 그것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천국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일오후 설교



미쁘신 주

살후 3:1-5

(7강 11.21일 설교)

예수님이 오시면 사람들이 마음껏 놀던 세상은 사라지고 새로운 참된 세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세상은 무엇이 허상이고 무엇이 실상이었는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다른 세계가 감추어져 있었고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 자신들의 무지였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말은 지금의 세상은 도무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입니다. 재림을 믿는다면 세상 또한 사라질 것을 믿는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신자는 세상에서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때 내 것만 달랑 남겨 놓으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애당초 내 것이라고 우길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에 내 것을 남겨 놓기 위해 살아갑니다. 이것이 재림과 상관없이 산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재림을 믿는다는 말은 하되 재림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세계보다는 육신이 몸담고 있는 세상에 자기 세계를 구축하는 일에 열중한 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속성을 깨뜨리시고 그 속에 천국 백성의 속성을 집어넣으시기 위해 일하십니다. 이것이 주의 미쁘심입니다.

3절에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고 말합니다. 미쁘시다는 것은 진실과 신실을 의미합니다.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주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의 속성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이 주가 굳건하게 하시

고 지켜주지 않으면 안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주가 나서서 굳건히 해주시고 지켜주셔야만 하는 위험한 곳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나를 위한 곳으로 보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이 나를 중심으로 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깨어질 곳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세상에 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을 달라고만 합니다.

세상은 돈 가지고 노는 곳입니다. 자연히 돈이 많은 사람이 큰소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나라에서도 큰소리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인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본향에는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고 작심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에 취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실상을 아는 사도는 다릅니다. 1,2절을 보면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고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사도는 무엇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는 것일까요? 사도 보다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도가 더 힘이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사도 개인의 기도보다는 교회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더 힘이 있어서일까요?

하지만 그것은 사람이 힘을 모으면 하나님의 응답도 받아낼 수 있다는 사고방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한 사람보다는 열 사람의 기도가 더 세고, 열 사람보다는 백 사람의 기도가 더 세다는 세상의 힘의 논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가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사도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교회에 알게 함으로써, 사도가 원하는 것을 함께 원하고 사도와 같은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자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3절)**는 말을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사도와 같은 마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굳건히 하시고 악한 자

로부터 지키시는 것이 주의 미쁘심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미쁘심은 육신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의 미쁘심이 육신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계속된 핍박과 환난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주의 일이 됩니다. 다만 주께 죄를 범한 징벌의 차원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더 극심해진 핍박과 환난에서 주의 사랑, 은혜를 이해하기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기도를 부탁하는 말을 하면서 미쁘신 주의 일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는 것임을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기도에서 우리는 사도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염두를 두어야 합니다. 사도가 만약 우리와 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봤다면 본문과 같은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의 기도는 세상에서 자기 것으로 자신을 굳건히 세우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는 우물 밖의 세상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고 우물 밖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우물 밖의 세상을 알려면 우물 밖의 세상을 경험한 다른 개구리가 들어와서 얘기를 해주는 길 밖에 없습니다. 사도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보지 못한 다른 세계를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를 통해서 다른 세계에 대한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물 안의 세계만 전부로 여기는 개구리가 우물 밖의 세계에 대한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사도가 전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세상의 실체도 전부도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세상이 돈만 있으면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보이지만 사도에게 세상은 악한 자가 역사하는 곳이었습니. 신자를 미혹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사탄의 활동이 극심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주가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지 않으면 안되는 곳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 역사가 없으면 안되는 세상을 신자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신자의 승리는 주의 인도하심에 달려있습니다. 그

리고 신자의 승리는 미혹과 핍박과 환난이 계속되는 세상에서 끝까지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깨닫고 핍박과 환난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인내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현실에 속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자신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내입니다.

보이는 세상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사도의 기도는 실감 있는 생생한 기도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실감있는 생생한 기도라면 사업이 잘되고, 능수 능조 잘나오게 해달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것이 생생한 현실의 문제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현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은 완전히 깨어집니다. 세상에서 즐기고 기뻐하고 자랑하던 모든 것들은 여름 햇살에 눈 녹듯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참된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이러한 참된 현실에 맞추어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약속의 말씀 아래서 주의 미쁘심을 생각한다면 미쁘신 주께서 우리에게 왜 함께 하셔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신자는 주어진 환경과 상관없이 주를 바라보며 주의 도우심과 불드심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수요일 설교



믿음으로 살리라

함 2:1-4

(3장 12.1일 설교)

현대는 주를 믿는 믿음이 간절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물론 이 같은 긴박성을 깨닫는다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간절히 요구되는 시기라는 긴박성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 느끼는 긴박성과 절실함은 무엇입니까? 하박국 선지자에게 긴박한 것과 절실했던 것은 하나님의 의가 제대로 행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의에 속한 유다가 평강을 누리고, 악에 속한 이방인이 심판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움이 제대로 증거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의 절실한 마음을 외면하십니다. 선지자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4절)는 답을 주십니다.

이 말은 신자는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을 강요하는 맹목적인 말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왜 믿음이 아니면 안되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아니면 안될까요? 믿음이 무엇이기에 이방인에게 핍박을 받고 고통을 겪는 현실에서도 믿음이 담으로 등장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2,3절의 내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목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목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때를 정해 놓으셨고 그 때가 곧 종말을 의미하는데, 그 종말의 때가 거짓됨이 없이 반드시 속히 이를 것이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의인과 악인은 구별되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종말이 이르기 전에 세상에서 의인이 누렸던 것들, 악인이 누렸던 것들은 모두 심판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즉 의인과 악인의 증표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인이 핍박을 받고 악인이 행통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것은 잠시 동안의 행통으로 보이는 것일 뿐 악인이 결국에 당할 일은 종말이 이르렀을 때 드러납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에서의 일에 민감할 필요가 없고, 세상에서 겪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상에서 겪는 문제를 기준으로 확인하고자 한다면 스스로 혼란을 자초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한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세상의 환경과 형편으로 드러나지 않고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에 의인이 핍박을 받는 것을 의가 무너진 불합리한 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일을 바로 잡아주기를 촉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종말이라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는 속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비추보면 세상은 지금은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힘은 잠시 동안의 향연에 불과할 뿐이기에 그 향연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신자가 종말을 생각하지 않으면 현실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왕 사는 것 재미있게 살다 가자' 라는 세상의 생각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신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고는 삶에서 주어지는 문제들의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르게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문제의 답을 찾지 못하고 탄식을 하며 하나님을 부당한 분으로 여기듯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국가적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외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모든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교회에 잘 나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으로 여기던 삶에서 그 삶의 근원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잘 먹고 잘사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다른 문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죄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신실한 관계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다는 것은 그가 어

떤 삶을 누리든 무의미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종말이 되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잘 먹고 잘 산 것이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곧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때에 세상 것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에 것에 가치를 두고 세상의 것으로 풍족한 인생을 누리는 것이 신자에게 마땅하고 당연한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왜 세상을 종말의 때에 깨어지고 부서질 곳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까?

비로 지금의 세상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종말이 되면 하나님의 정의는 완벽히 실현되고 드러납니다. 악은 제거되고 의는 굳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끝나는 순간이고 겹탈과 강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선지자가 현실을 보면서 답답해 한 것처럼 우리도 현실을 바라보면 답답한 마음뿐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합리하게만 보이고, 하나님이 왜 저렇게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만 경험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를 향한 말씀에서 답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묵시의 때가 곧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는 겉으로는 매우 더디게 보이지만 기다리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임한 그 날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종말이라는 때를 기다리는 자로써 현실을 바르게 살아가는 길로 믿음을 말씀합니다. 돈이 아니라 의인으로 사는 것이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돈이 없으면 불편할 뿐이지만 믿음이 없으면 곧 죽은 자라는 것을 압니다. 믿음을 생명의 근거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긍휼과 사랑을 베푸셨다는 증거입니다. 고통을 겪고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세계를 더욱 크게 경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전부고 믿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의인에게 삶의 근거는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

오전 11시

인도 / 신윤식 목사

목상기도	다 함 께
사도신경	다 함 께
찬 송	40장
교 독 문	81(엡4장)
기 도	이성의 장로
찬 송	524장
성경봉독	마 18:8-14
설교제목	천국 쟁전(116장)
기 도	설 교 자
찬 송	220장
교회소식	이영민 장로
찬 송	1장
축 도	설 교 자

다음주기도 : 조규연 장로

주일 오후 예배

오후 2:20

인도 / 신윤식 목사

사도신경	다 함 께
찬 송	391장
기 도	김종건 집사
찬 송	483장
성경봉독	몬 1:4-7
설교제목	믿음의 교제(2장)
기 도	설 교 자
찬 송	315장
주기도문	다함께

다음주기도 : 박위선 권사

수요일 예배

오후 7:30

인도 / 신윤식 목사

아박국 강해(5장)

우리들의 가는 길

신윤식



삶이 어찌 가벼우랴
돌맹이를 지고 가는 것을

삶이 어찌 즐겁기만 하랴
눈물도 안고 가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살든
한 길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요

또 한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니

세상에 취해 살며
즐거운 것만 찾을 수는 없는 일

산이 험해도 올라야 하고
물결 거세도
강을 건너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가는 길이니

언제나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생명을 안으려는
간절함으로 삶을 여미고
우리 함께 종종걸음하자

우리의 하루는
그렇게 저물어 가야 한다.

교회소식

1. 2011년 교회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한 가정에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2. 목요일 성경공부는 1월까지 쉬겠습니다.



예 배	시 간	예 배	시 간
주일 낮	오전 11:00	어린이	오후 1:00
주일오후	오후 2:20	장년성경공부	(주)오후 1:00
수요일	오후 7:30	청년성경공부	(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기도회	오후 8:00